

4주차

외래사상, 불교를 받아들이다

박 미 선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불교의 탄생과 전파

- 도입
- 인도에서 불교의 탄생
- 인도에서 중국으로

02. 한국 고대사회의 불교 수용

-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수용
- 신라의 불교 수용
-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가 전해진 까닭

03. 신라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1)

- 사금갑 사건
- 일관의 승려 견제
- 비처왕 때 불교 배척의 또다른 이유

04. 신라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2)

- 이차돈 순교 설화
- 이차돈 순교의 숨은 의미
- 이차돈 추모

05. 한국 고대 왕들이 불교를 공인한 까닭

- 불교 수용 전 천손의식
-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
- 왜 불교였나?

2차시

한국 고대사회의 불교 수용

학습목표

-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불교 수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신라의 불교 수용에서 고구려, 백제와 다른 점 및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수용
- 신라의 불교 수용
-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가 전해진 까닭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수용

고구려의 불교 수용

“ 372년에 중국 전진이라는 나라의 왕인 부견이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順道)를 파견하면서 불상과 불경을 보내왔다. 2년 뒤인 374년에는 승려 아도(阿道)가 고구려에 왔다. ”

“ 다음 해인 375년 2월에는 초문사(肖門寺)라는 절을 짓고 승려 아도를 머물게 하였고,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승려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

백제의 불교 수용

“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침류왕(枕流王)이 즉위한 해인 384년이다. 호승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중국의 동진(東晉)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백제왕이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모시고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였다. 다음해인 385년에는 서울에 절을 짓고 승려 10명을 두기도 하였다. ”

고구려, 백제 불교 수용의 공통점 및 특징

- 전진, 동진 : 중국 왕조로부터 전해짐
- 중국에서 승려가 옴 → 사찰을 지어 머물게 함

고구려, 백제 불교 수용의 공통점 및 특징

- 불교 수용 과정에 마찰이 보이지 않음
 - 393년 고구려 광개토왕, 평양 지역에 9개 사찰 창건
 - 392년 백제 아신왕,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라’ 함

→ 왕이 중심이 되어 불교 수용 ‘전파’

신라의 불교 수용

불교 전래 설화(1)

: 《삼국사기》 (<계림잡전> 인용)

- “ 19대 눌지왕 때 ‘묵호자’라는 승려가 고구려에서 신라의 일선군에 이르렀다. 일선군 사람 모례가 자신의 집 안에 굴을 파서 그를 모셨다. 그때 중국 양나라에서 의복과 향을 보내왔는데, 왕과 신하들은 그 향의 용도를 알지 못해 사방으로 묻고 다녔다. 이때 묵호자가 말하길,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르면 神聖에게 정성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르며 발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것입니다.’ 하였다. ”
- “ 마침 공주가 위독하였는데, 묵호자를 불러 향을 사르며 기도를 올리자 공주의 병이 나았다. 왕이 기뻐하며 하사품을 주었는데, 얼마 후 그가 돌아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

불교 전래 설화(2)

: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 “ 아도는 고구려 사람으로 어머니는 고도령이다. 중국 조위의 사신으로 고구려에 왔던 아골마가 고도령과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고도령이 아도를 낳았다. ”
- “ 아도가 5살이 되었을 때 출가시켰고, 16세 때는 조위로 가서 아버지를 뵙고 불교를 배워 19세 때 돌아왔다. ”
- “ 어머니가 말하길, ‘고구려는 불교를 알지 못하지만 3천여월이 지나면 계림에 성스러운 왕이 나타나 불교를 일으킬 것이다. 계림의 수도 경주에 7곳의 절터가 있는데, 모두 전불시대의 절터이고 불교가 길이 흐를 곳이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불교를 전파하라.’고 하였다. ”

- “ 아도는 그 말에 따라 계림에 왔는데, 그때가 미추왕이 즉위한 지 2년인 263년이였다. 아도가 궁궐에 나가 불교를 전하니,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라 꺼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아도는 모록의 집으로 도망가 숨어 지냈다. ”
- “ 다음 해에 성국공주가 병이 났는데 무의도 효험이 없었다. 아도가 궁궐로 가서 병을 고치니, 왕이 기뻐하며 소원을 물었다. 아도는 절을 지어 불교를 일으켜 나라의 복을 빌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절이 흥륜사이다. ”

“ 모록의 집으로 돌아와 몸소 무덤을 만들어 문을 닫고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불교가 폐지되었고, 514년 23대 법흥왕 때 불교를 일으켰으니, 미추왕 2년부터 252년 뒤의 일로 고도령이 예언한 3천여월이 들어맞다. ”

두 설화 비교: 차이점

- 《삼국사기》

: 눌지왕(재위 417~458) 때 양나라(502~557)에서 향 전래

→ 시기가 맞지 않음

*양나라와 교류=법흥왕

두 설화 비교: 차이점

- 《삼국유사》

: 미추왕 때 불교 전래 → 고구려, 백제에도 불교가 전해지기 전

↘ 법흥왕 기준 3,000개월 소급한 시기

→ 신라 불교 수용 : 눌지왕 때

두 설화 비교: 공통점

- 목호자, 아도 : 고구려 승려
- 신라 '모례' 혹은 '모록'의 집에 머무름
- 공주의 병을 치료



도리사 극락전(경북 구미)
아도가 세운 신라 최초의 사찰이라 전함

- 신라 불교는 ‘고구려’로부터 전해짐
- 공식 루트가 아님, 고구려 승려 개인 자격으로 포교
- 일선군(경북 구미)
 -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 전파 지역



도리사 극락전(경북 구미)
아도가 세운 신라 최초의 사찰이라 전함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가 전해진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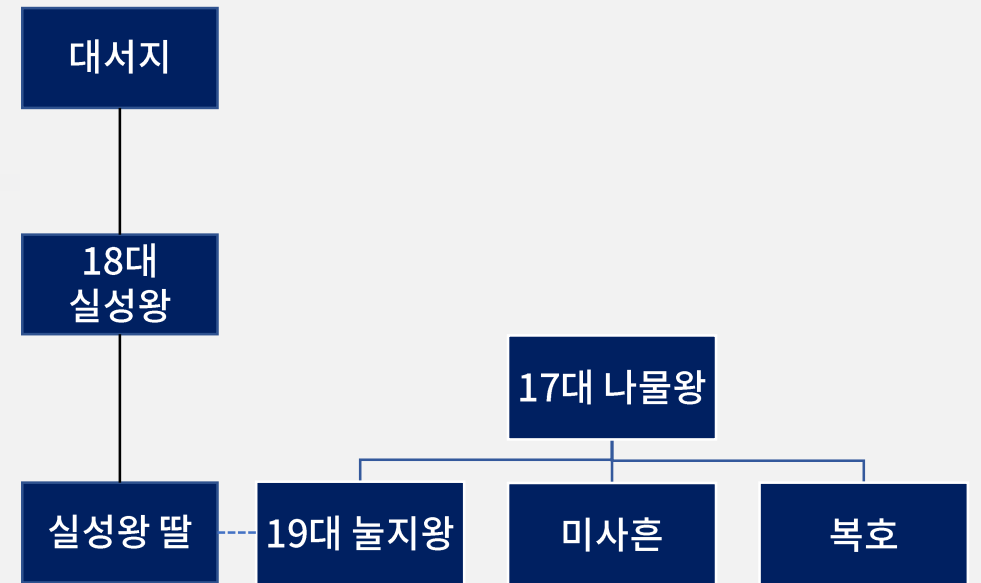
지리적 조건

- 신라,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 → 중국과 교류가 어려움

5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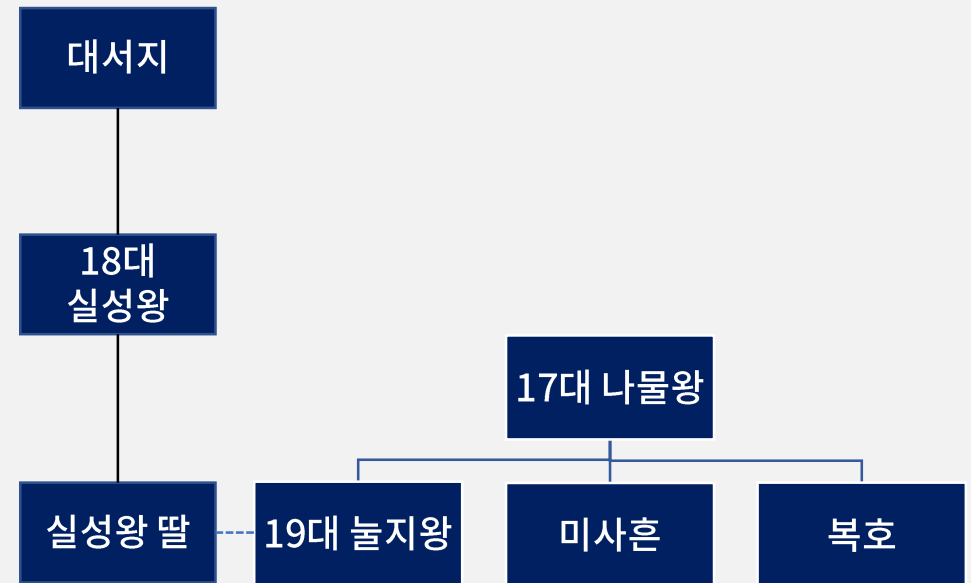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 물리침
- 신라 나물왕, 고구려에 ‘실성’을 인질로 보냄
- 고구려에 돌아온 실성, 왕이 됨



나물왕~ 눌지왕 왕위계승도

- 실성왕, 나물왕의 아들 눌지를 죽이려고 함
- 고구려군사가 눌지에게 알려줌
- 실성왕을 제거하고 눌지가 왕이 됨
- 눌지왕,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 형성 - 불교 수용



나물왕~ 눌지왕 왕위계승도

고구려, 백제와 다른 신라의 불교 수용

SOURCES

[출처01] 박미선 개인 소장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